빨대 꽂아도 되는 유일한 인연

(욥기 19:1~29)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빨대 꽂아도 되는 유일한 인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빨대 꽂아도 되는 유일한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의 오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회를 믿는 불교에서는 이생에서 옷깃이 스치려면 전생에 삼천 번의 만남이 있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아주 가볍고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옷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옷깃은 전통적으로 목과 가슴부분까지를 감싸는 동정을 말합니다. 이 옷깃이 스칠 정도가 되려면 소매나 옷자락이 스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옷깃이 스치기 위해서는 부둥켜안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이 스칠 정도의 인연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처럼 부둥켜안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관계라도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나기는 만나되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옷깃이 스칠 정도로 부둥켜안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관계나 가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북이산가족이 몇 십 년 만에 만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인연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에는 단순한 만남이 있고

인연을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연은 곧 마음의 묶임입니다. 그러나 만남은 마음이 묶이지 않더라도 육체와 육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화상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묶이지 않아도 만남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연을 맺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옷깃이 스칠 정도의 깊은 관계로 마음과 마음이 묶이게 되면 그 인연은 반드시 악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묶이는 두 마음은 공백상태입니다. 공백상태인 마음은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흡입력으로 작용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한 빨아들이려합니다. 그런데 공백을 채우려는 마음이 묶이면 서로에게 빨대를 꽂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얼음이 들어있는 콜라를 빨대로 마실 때에 콜라를 다 마시고 나면 얼음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음만 남는 상태처럼 사람에게서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해서 살더라도 서로를 통해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빨아들여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를 원망하고 만남을 후회하게 되는 악연이 되어버립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빨대를 꽂고 자녀의 성공과 형통으로 기뻐하려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악연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연을 마음이 묶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빨대 꽂는 관계로서 정의한다면 반드시 악연이 됩니다. 악연은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빨대를 꽂을 때에 서로가 악연이 되고, 자녀에게 빨대를 꽂고 부모에게 빨대를 꽂아도 서로에게 악연이 됩니다. 빨대를 꽂아도 되는 인연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묶인 인연의 관계가 아니라 만남의 관계로서만 맺어져야 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이럴 때에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와의 만남이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관계와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욥은 참 특이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27절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내가 그를 보

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합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육체 밖에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육체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육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라는 말은 옳지 않다거나, 혹은 다른 의미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부활이 아닌 지금 악창이 난 몸이 건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활사상이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14장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활사상이나 내세에 대해 욥의 생각이 움트는 것을 본문에서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대 꽂는 인연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욥의 신앙은 이 현세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수많은 통치의 대상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1:1의 빨대 꽂는 인연의 관계로 접어들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라는 말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ace Off"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 가죽을 바꾸자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20절까지에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죽이 벗김을 당한 것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가죽은 곧 인간사회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페이스오프 영화에서처럼 기존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

다. 그러나 이 인연들이 다 끊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므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연을 맺음으로서 마음을 채우기 위한 흡입을 할 것이라는 고백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연이라는 괄호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와 가족을 괄호로 묶어서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서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는 가죽 벗김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빨대 꽂는 인연이 맺어질 수 있고 그로부터 다른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꽂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옷깃이 스칠 정도로 서로를 부둥켜안을 수 있는 마음의 인연은 오직 하나님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 빨대를 꽂으며 맺어왔던 다른 모든 인연들은 끊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욥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에게 빨대를 꽂던 모든 인연이 끊어지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와 묶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묶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이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 없이도 가죽이 벗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 재산 친구 등의 가죽이 벗겨지고, 마음을 묶는 관계들의 가죽이 벗겨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38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을 직접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빨대를 꽂았던 모든 인연들을 다 벗기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늘의 하나님과 옷깃을 스치며 부둥켜안을 수 있는 인연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러한 소망이 쉽게 찾아오지 않음에 지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욥처럼 고통을 받지 않고도 가죽을 벗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과 빨대 꽂는 인연을 맺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준비된 자로 이 세상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기존의 모든 빨대 꽂던 인연들이 페이스오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인연을 맺어서 충족해진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